

行政學碩士學位論文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에 關한 研究

1991年 6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政策學 專攻

裴 鍾 眞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USSR'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指導教授：鄭 成 澤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1年 6月 日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政策學 專攻

裴 鍾 眞

論文認准書

裴鍾眞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1年 6月 日

審查委員長 李鍾受 

審查委員 鄭成澤 

審查委員 金環培 

目 次

第1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2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5

第2章 蘇聯의 對東北亞·太平洋 外交 政策

1. 蘇聯 對外政策의 傳統的 目標 7
2. 東北亞의 戰略的 環境 10
3. 蘇聯의 東北亞 進出 背景 12
4. 蘇聯의 新아시아·太平洋 政策 15

第3章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1.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의 基本 目標 20
2. 蘇聯의 對北韓 政策 22
3. 蘇聯의 對南韓 政策 26

第4章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이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 및 韓國의 對蘇政策 方案

1.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 33
2. 韓國의 對蘇政策 方案 35

第5章 結 論	39
▣ 參考文獻	41
▣ ABSTRACT	45

1

序 論

研究의 目的

研究의 範圍 및 方法

第1章 序 論

1. 研究의 目的

現 國際情勢는 蘇聯의 經濟的 危機, 페레스트로이카 등 開放政策에 따른 對西方 關係改善 追求,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실질적인 기능 마비로 인한 蘇聯의 威脅 減少, 統一 獨逸의 등장으로 冷戰이 終熄되고 있고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氣流 또한 매우 급속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韓國에 대한 敵對政策과 北韓에 대한 一方的인 支持, 支援政策으로 표현할 수 있는 基本政策을 40여년 동안 견지해 왔던 蘇聯이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韓半島에 대한 政策을 획기적으로 그리고 급속히 轉換하기 시작하였다.¹⁾

고르바초프는 1985년 3월 취임 이래 30년간 지속되어온 對西方 위주의 外交政策을 脫皮, 外交路線의 다변화를 강조하면서 그동안 등한시 되어온 아시아·太平洋 地域에 주목할 만한 관심을 보여왔다.

고르바초프의 아시아·太平洋 지역에 대한 관심은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宣言과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宣言에서 포괄적으로 表明된바 있으며 韓半島에 대한 일련의 적극적인 外交政策은 그러한 新아시아·太平洋 政策, 나아가 고르바초프의 新外交路線과의 유기적 관련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르바초프의 아·태공세 強化와 이에 따른 적극적인 韓半島

註 1) 전정환, "國際 情勢와 蘇聯의 韓半島 政策", 「새물결」(서울: 自由評論社, 1991.

3) p. 35

政策은 韓半島의 變革과 安定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는 挑戰과 機會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推進하고 있는 北方政策과 관련하여 볼 때도 매우 큰 意味가 있다.

蘇聯의 韓半島 政策은 먼저 對北韓 關係개선으로 나타났던 바, 金日成이 1984년 5월과 1986년 10월 방소한 이래 蘇聯과 北韓 兩國 사이에는 대규모 軍事 代表團의 왕래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양국 關係는 각 분야에 걸쳐서 현저하게 긴밀화 되었다.

고르바초프는 1989년 5월 北京 演說을 통해 韓半島의 平和的·民主的 統一을 향한 北韓의 노력에 대한 蘇聯의 不變 意志를 천명하였으며 1990년 9월에는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이 北韓을 방문 朝·蘇國境 設定에 관한 議定書에 調印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對北韓 關係 긴밀화로 戰略的 基地 確保라는 첫단계 政策을 매듭지은 蘇聯은 제2단계적 조치로 對韓國 접근을 시도하였다. 1988년의 서울 올림픽은 이러한 蘇聯의 의도에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蘇聯은 영사단의 서울주재, 대규모의 선수단 파견, 문화 올림픽에의 적극 참가 등으로 韓國에 대해 '轉換期的 事變'이라고 평가할 만한 外交的 이니셔티브를 취하였다.²⁾

韓·蘇兩國은 1989년 12월 영사처 교환개설에 합의한데 이어 1990년 2월 주모스크바 한국영사처, 3월에는 주서울 소련영사처가 각각 설치됐으며 동년 6월에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역사적인 韓·蘇頂上會談을 갖고 韓·蘇修交에 합의를 했다. 동년 9월 韓·蘇外務長官은 韓·蘇修交 共同 宣言文을 채택함으로써 韓·蘇間에 수교를 맺게 되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2월 소련을 공식 방문,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2차 頂上會談을 갖고 韓半島및 아시아·太平洋 지역에서의 冷戰終熄과 平和 定着을 가속화하고 南北間의 政治, 軍事的 對決 終熄과 韓半島 問題의

註 2) 「東亞日報」, 1988. 10. 17.

平和的 해결을 위한 南北對話의 지속을 支持하는 내용을 담은 ‘韓·蘇關係의 일반 원칙에 관한 宣言’(모스크바 宣言³⁾)에 공동서명 했으며⁴⁾ 1991년 4월에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 3차 頂上會談을 갖고 韓·蘇友好 協力條約 推進에 합의를 했다.

과연 이러한 蘇聯의 적극적인 韓半島 政策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같은 蘇聯의 政策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문제점에 대한 糾明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蘇聯의 韓半島 政策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가 또는 持續的 政策의 일환으로서 일시적인 調整 내지는 適應(ADJUSTMENT OR ADAPTATION)에 불과한가 하는 점이다.

둘째, 고르바초프의 韓半島 政策이 防禦的 意圖(DEFENSIVE INTENTION)에서 기인하는가 또는 攻擊的 意圖를 갖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구체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서 蘇聯의 南·北韓에 대한 동시적 접근이 상호 모순성을 갖는지의 여부이다. 즉, 이러한 두 政策이 일회적 政策 效果를 겨냥한 별개의 政策인가 또는 보다 높은 政策 效果를 위하여 상호 연관성을 갖는 政策인가 하는 점이 糾明돼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기되는 문제점은 결국 蘇聯의 政策意圖로서 政策決定의 요인별 접근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고 나름대로의 意味있는 結論을 도출하는 것이 본 論文의 研究 目的이다.

註 3) 모스크바 宣言에는 양국관계의 새로운 역사의 개막을 알리고 ① 南北韓統一을 위한 緊張緩和와 信賴構築 ②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의 호혜적 협력 강화 ③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한 선린, 신뢰, 협력관계증진 ④ 양국간 통상·합작기업 및 개발투자와 과학기술교환을 포함한 경제분야 협력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註 4) 평화통일 편집부, “北方政策과 페레스트로이카의 만남”. 「평화통일」 (서울: 평화통일 1991. 2.) p. 27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한 나라의 外交政策이나 戰略을 分析하는데는 다양한 자료와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홀스티(K. H. HOLSTI)는 外交政策의 定義를 “目的을 規定하고 先例를 設定하며 또는 行爲의 路線을 規定하는 決定과 그 決定을 實施하기 위한 行爲이다”라고 했다.⁵⁾ 그러나 國際關係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外交政策·戰略 등은 실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도출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 가지 이론에 의한 접근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蘇聯의 韓半島 政策을 分析하고자 하기 때문에 空間的 범위에 있어서는 蘇聯의 東北亞 外交政策이 주로 고찰될 것이며 時間的 범위에서는 1980년대 특히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의 政策 狀況과 決定 要因에 관한 分析에 한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第2章에서는 東北亞의 戰略的 環境과 蘇聯의 東北亞 進出 背景 및 新아시아·太平洋 政策을 分析하였고 第3章에서는 蘇聯의 對北韓 및 對南韓 政策을 비교 分析하였으며 第4章에서는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이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과 韓國의 對蘇政策 方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범위에 걸쳐 研究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方法을 택하였다.

첫째, 分析을 위한 자료는 各種文獻, 研究論文, 報告資料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分析은 技術的 接近法을 위주로 하고 歷史的 接近法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전체적 논리의 전개는 영향 변수에 초점을 맞추어 歸納的으로 전개하였다.

註 5) K. H.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 Prentice Hall, Inc, Englewood cliffs, 1977), p. 29

2

蘇聯의 對東北亞·太平洋 外交 政策

蘇聯 對外政策의 傳統的 目標

東北亞의 戰略的 環境

蘇聯의 東北亞 進出 背景

蘇聯의 新아시아·太平洋 政策

第2章 蘇聯의 對東北亞·太平洋 外交 政策

1. 蘇聯 對外政策의 傳統的 目標

蘇聯은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世界政治 무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자국의 社會主義를 強化하는 순수한 국가 이익에만 치중하였으나 전후 蘇聯이 勝戰國으로서 동유럽에서의 社會主義 改革을 성공시키게 되자 社會主義 진영의 指導者로서 社會主義의 強化, 擴大에 노력하게 되고 對外政策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強化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對外政策은 스탈린 시대에 그 절정에 달했으나 흐루시초프 시대에 경감되다가 브레즈네프 시대에 다시 부활되어 형식적으로는 대서방측과의 對話를 중시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社會主義的 理念에 의한 外交가 행하여 졌으며 고르바초프 이후 대폭 약화되었다.¹⁾

蘇聯 對外政策의 基本 目標는 蘇聯 憲法 제28조에 “蘇聯은 항상 레닌의 平和的 政策을 實施하고 세계 제민족의 유대 및 광범위한 國際的 協力을 위해 노력한다. 蘇聯의 對外政策은 蘇聯의 共產主義 건설을 위해 好意的인 國際 條件의 보장, 蘇聯의 國益保護, 世界 社會主義 立地의 強化, 민족 해방과 사회진보를 目標로 하는 제민족 투쟁의 지지, 侵略戰爭의 防止,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축과 다른 사회 체제를 가진 국가들간 平和共存 원칙의

註 1) 중소연구 편집부, “蘇聯對外政策의 傳統的 目標” 「중·소연구」 (서울: 한양대 중소연구소 1990. 여름) pp. 113~116

철저한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²⁾

蘇聯 憲法 제28조 내용에 의거한 蘇聯의 對外政策 基本 目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러 社會主義 國家間的 團結 및 紐帶 強化이다. 蘇聯은 먼저 바르샤바 조약 기구와 코메콘 쌍방에 가맹한 국가(체코·폴란드·헝가리·불가리아·루마니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蘇聯은 이들 國家의 現체제 유지를 위해 東西間的 戰爭도 사양하지 않을 뿐더러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軍事力의 행사에 호소한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브레즈네프 독트린³⁾이 적용될 가능성은 물론 蘇聯이 이들 나라의 內政을 干涉할 수 있는 權利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제3세계에 대한 政策으로서 이들 국가들을 가능한 한 동측에 끌어 들인다는 目標이다. 蘇聯은 2차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제3세계에 대해 效果的이고도 持續的인 영향력을 행사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세계에 대한 명확한 政策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전후 얼마 안되어 獨逸, 이탈리아의 옛 植民地 상실이나 국권이 저하된 영국·프랑스 등의 植民地 유지상의 곤란으로 인한 제3세계 解放運動은 60년대 부터 蘇聯의 對서방측 戰略에 호재로 인식되었으며 흐루시초프는 이러한 반제국주의적 민족해방 운동을 ‘자연의 동맹자’로 평가했다.

즉 이 運動은 적대적인 서방국가들의 중요한 經濟的 기반을 빼앗고 東西間 힘의 상관관계를 동측에 유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브레즈네프 정권은 특히 소련형 社會主義 모델로 출현한 국가들(이디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남예멘, 앙골라)에 대해 政治·經濟·軍事的 支持를 표방하기도

註 2) 崔鍾起, 「各國外交政策論」 (서울: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81) p. 326

註 3) 이것은 친소련 동구제국에서 성립된 社會主義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각국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 전체의 이익으로서 소련의 의도를 무력화으로라도 관철시키려는 것임.

했다. 이들 社會主義 지향국을 지원하는 蘇聯의 政策은 서방측을 약화시키는 대서방 政策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 強化策으로도 연결되어 있다.

즉 蘇聯은 제3세계의 지원을 통해 이들 나라에서 社會主義를 고양하고 이를 통한 社會主義 체제의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目標를 두고 있다.

셋째, 資本主義 국가들과의 平和共存 관계의 유지를 들 수 있다. 蘇聯의 구정에 의하면 “平和共存은 社會主義와 資本主義間的 계급투쟁의 한 특수한 형태로써……平和主義의 입장과는 전혀 모순되지 않은 것”⁴⁾으로 간주하고 平和共存에 있어서는 레닌적 원칙을 단호히 고수하고 있다. 또한 平和共存 政策 推進을 위해 蘇聯은 戰爭의 거부,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무력사용 또는 무력에 의한 위협 거부, 교섭에 의한 분쟁의 해결, 國家의 主權, 領土保全과 이들 국가의 국경 불가침성의 엄격한 존중, 내정불간섭, 완전한 평등과 호혜에 의거한 協力, 국제법 공인의 원칙과 기준 및 체결된 國際條約이 부과하는 의미의 양심적 수행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蘇聯은 선진 資本主義 國家를 最大의 이데올로기상의 적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나 이들 國家를 붕괴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 꾀하는 것은 물론 핵무기 보유국간의 동시전쟁이 蘇聯에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아래 平和共存 政策을 견지하고 있다.

넷째, 蘇聯 對外政策 目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國際 共產主義 運動의 強化이다. 이것은 社會主義 國家의 執權黨 그룹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나 제3세계의 共產黨, 노동자당을 조직하는 運動으로 동측에서는 그 國家의 執權者, 제3세계의 社會主義 지향국에서는 執權黨으로서의 전위당, 자본주의 지향의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반체제적 성격의 공산당, 노동자당, 서방국가에서는 공산당에 대해 영향력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蘇聯 對外政策은 이같은 傳統的 基本 目標의 인식 속에서 蘇聯

註 4) Diplomatic Dictionary (Moscow : State Printing. House for Political Literature, 1961). pp. 287~299

共産黨의 對外政策 기본 立場의 표명과 政治 指導者의 변화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며 전개되고 있다.

2. 東北亞의 戰略的 環境

韓半島는 國際政治 環境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 美·蘇의 양극 체제에서 北韓은 中·蘇를 우방으로 하는 ‘北方 三角關係’에 있고 韓國은 美·日을 우방으로 하는 ‘南方 三角關係’에 있다.⁵⁾ 이것은 동북 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양극 체제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다.

1980년대말 동아시아의 戰略的 環境은 비교적 친서방쪽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蘇聯은 이를 뒤엎기 위해 太平洋 地域에 海軍 및 空軍力을 強化하여 軍事力에 의한 政治的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⁶⁾

친서방의 戰略的인 배경과 아시아에 있어서 蘇聯의 복귀등에 관한 주요 요소를 다음의 몇가지로 볼 수 있다.⁷⁾

첫째, 共産國家間의 新冷戰體制 突入이다. 蘇聯을 포함한 아시아 共産國家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적이 멀리 있는 서방국가들이 아니라 인접하고 있는 共産國家들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 상호간에 중무장한 군대끼리 國境線에서 충돌하는 양상등은 역사적인 수세기전의 紛爭 記錄이 공통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연되는 현상으로 露呈되기도 한다.

이것은 아시아의 지정학적인 요인이 이데올로기보다 국제 관계에 있어 繼續的인 要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증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東·西 및 東·東間의 混合에 의한 紛糾로 인해 蘇聯은 동쪽은 中國·日本·美國에 의해 서쪽은 NATO에 의해 포위되고 있다. 베트남은 北方으로 中國에 의해 포위되고 ASEAN(東南亞 國家 聯合)은 동 및 서쪽에, 日

註 5) 은인영, “동북아시아 국제기류의 변동”, 「총력안보」 (1986. 12) p.17

註 6) Donald, S. Zagoria, ed., “소련의 대아시아정책” pp. 5~13

註 7) 崔鍾起, 「蘇聯外交政策論」 (서울: 法文社, 1988) pp. 353~358

本과 美國에 의해 支援되고 있다. 이것은 戰略的인 惡夢으로서 이 세 공산 국가들은 이것을 解消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地域의 비공산제국은 새로운 事態 進展으로 많은 戰略的인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敵對關係, 공산국가간의 對立은 동아시아의 勢力 均衡에 있어 西方側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요인으로 되어 있다. 공산국가들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비공산국가간에 強力한 압력을 作用할 수 없으며 오히려 비공산 국가들과의 妥協을 追求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中國의 親西方 傾斜이다. 中國은 1976년 毛澤東이 사망한 후 鄧小平의 開放政策은 동북아시아에서 政治와 經濟를 분리하여 國益을 優先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등 國內의 政策 變換期를 맞이하여 동 地域에서의 새로운 勢力 均衡에 기여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中國은 蘇聯 勢力을 封鎖하고 現代 經濟를 건설한다는 絶對的 이해때문에 그들의 이해가 西方과 많은 면에서 共通된다는 것을 發見하였다.⁸⁾

中國이 美國과의 國交 正常化를 이룩한 후 美國은 蘇聯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中國이 더욱 強力해 지고 能動的인 役割이 기대된다고 언명하고 있으며 中國은 日本과 相互友好協力 條約을 체결하고 베트남에 반대하는 ASEAN의 立場을 支持하였다. 中國과 美國및 日本과의 關係가 긴밀해짐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蘇聯의 膨脹에 더욱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日本의 신중한 처신이다. 日本은 현재 美國과 보다 積極的인 安保 協力の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蘇聯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中國과 相互友好協力 條約을 체결하였다. 2차대전 이후 日·蘇兩國간의 분쟁의 對象인 '쿠릴' 열도의 4개 도서에 대한 蘇聯의 계속적인 점령과 항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蘇聯을 이유없이 자극하는 것은 日本의 利益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그들의 經濟的 수단을 이용하여 최대의 政治的, 戰略的및 經濟的 이익을 確保하려고 할 것이다. 日本의 軍事力 增強은 蘇聯과 일부 아

註 8) 전정환, 「소련의 대아시아정책」 (서울: 국방대학원, 1984) pp. 19~21

시아 국가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나 많은 西方側 학자들은 아시아에서의 安定을 위하여 유리한 요소로 보고 있다.

넷째, 美國의 姿勢 變化이다. 베트남에서 美國의 敗北와 카터 행정부의 주한 미지상군 撤收計劃 提案때문에 동아시아내에서 美國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었으나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으로 終熄되어 美國의 海軍力이 증강되고 주한 미지상군의 철수계획은 白紙化 되었으며 태국과 파키스탄 같은 주요 동맹국에 대한 軍事 및 經濟的 援助를 증대하여 미국에 대한 신뢰를 높혀 주고 있다.

다섯째, 기타 요소로서 동남 아시아에 있어 ASEAN 국가들의 結束과 經濟의 急速한 成長은 中國, 日本, 美國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아시아·太平洋 지역으로의 進出을 가로 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蘇聯은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래 國內 改革政策과 對外 開放政策을 推進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國際的인 세력 관계의 根本的인 변화, 즉 蘇聯에 불리한 세력 균형 관계의 발전을 용인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蘇聯의 霸權政策은 표면적으로는 완화되더라도 그들 자신에게 戰略的으로 증대한 불이익이 닥쳐오고 불리한 전략 상황으로 발전된다면 고르바초프 이전 시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諸要素들은 다른 제3세계 지역과 크게 다른 것으로 이러한 障礙要素가 混合되어 장래 蘇聯의 동아시아에 대한 接近策은 팽창하려는 모험적인 노력과 야망보다는 온화한 政策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동지역에 대한 蘇聯의 주된 目標은 동지역내에 反蘇聯 聯合의 構成을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3. 蘇聯의 東北亞 進出 背景

美·日·中國의 聯合戰線 구축을 우려해 온 蘇聯은 동북아 지역의 軍事力 增強과 政治的으로는 '아시아 集團安保體制' 구상을 중심으로 美國 중심의

三角 協力體制를 약화시키려는 전선을 발전시켜 왔다. 蘇聯은 동북아에 최강의 함대를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軍事的·政治的 영향력에 대항하였다.⁹⁾

蘇聯의 이와 같은 東北亞 政策은 제정 러시아 시대부터 내려온 팽창주의 政策과 근래 東北亞 國際 情勢의 변화를 그 배경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蘇聯의 東北亞에 대한 進出 背景은 다음의 몇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美國은 월남전 이후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에 의한 아시아 기피현상과 軍費의 대폭적인 감축 조치를 단행하였고 아시아 國家들의 美國에 대한 不安과 不信은 고조되었으며 蘇聯으로 하여금 아시아·太平洋 地域의 軍事力 增強을 통한 세력 팽창의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1970년대초 까지 蘇聯은 유럽에서 西方에 대한 軍事力의 우위를 확보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제는 視野를 상대적으로 열세한 아시아·太平洋 지역으로 돌렸다.¹⁰⁾

셋째, 1970년대에 이르러 美·日·中國의 화해와 협력 무드가 무르익어 1978년 美·中國이 修交를 함으로써 美·日·中國의 三角協力 體制가 발전할 조짐을 보이게 되자 이에 대처키 위해 蘇聯은 아시아·太平洋 일대에 軍事力을 증강하게 된 것이다.¹¹⁾

넷째, 蘇聯은 막대한 軍事費 지출로 인해 蘇聯 經濟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蘇聯은 천연가스·석유·전력 등의 에너지및 産業 資本의 개발과 世界 經濟 중심의 太平洋 地域 이전 추이에 따라 시베리아의 개발 가치가 높아지게 되자 이를 적극적으로 推進키 위해 동북아로 진출하게 되었다.

註 9) 정천구, “한반도 분단의 배경과 그 구조적 성격” (서울: 국토통일원, 1985) p. 17

註 10) 전정환, “소련 극동 군사력의 증강 의도와 한국의 안보” 「국제문제」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85. 4)

註 11) 유창수, “소련극동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서울: 국방대학원, 1984) p. 91

즉 蘇聯은 強力한 軍事的 압력과 위협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美國에 의존한다든가 美國과의 동맹관계 혹은 友好協力 關係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오히려 蘇聯에 의존하고 蘇聯의 利益과 意志 및 指示에 따라 行動하도록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蘇聯은 韓國과의 經濟 協力を 계기로 日本의 蘇聯 進出 적극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蘇聯의 **INEMO**(蘇聯 科學아카데미 傘下 世界經濟 및 國際關係研究所) 所長 마르티노프는 1989년 10월 經濟問題가 政治問題와 별개가 될 수 없는 만큼 蘇聯은 동북아시아의 安保問題를 經濟問題와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였듯이 蘇聯은 아시아 정책에 있어 安保 戰略的 요인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安保 戰略的 측면에서 볼 때 蘇聯은 韓國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美國의 아시아에서의 傳統的인 영향력 약화, 北韓의 모험주의 견제, 蘇聯 극동 지역의 軍事的 緊張 緩和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蘇聯은 극동 시베리아의 經濟 繁榮을 도모키 위해 이 地域의 緊張이 緩和되어야 하며 그것을 가능케 하는 試金石은 中·蘇國境 지역과 韓半島에서의 軍事的 緊張 緩和임을 잘 알고 있다.

蘇聯은 그동안 아시아에서의 美·中에 비해 相對的으로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는 점에서 蘇聯이 韓國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韓半島와 아시아 地域에서의 軍備관리와 유럽에서와 같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蘇聯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은 分明하나 韓國은 傳統的인 美·日과의 유대 관계를 고려할때 적어도 韓國에서 蘇聯이 美·日과 동등한 또는 우월한 安保 戰略的 이익을 얻을 수 없음은 分明하며 美·日을 포함한 蘇聯도 이 점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蘇聯은 앞으로 머지않은 시기에 韓半島에 軍事的 緊張을 緩和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軍축, 軍비관리 이니셔티브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¹²⁾

註 12) 신승권, “한·소양국 각각 이것을 노린다” 『월간중앙』 1990. 5. pp. 224~226

4. 蘇聯의 新아시아·太平洋 政策

1960년대 중반 이래로 蘇聯의 아시아에 대한 주 目標은 그 지역의 政治와 軍事 그리고 經濟發展에 더 큰 影響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蘇聯은 이 지역에 대한 美國의 위치를 약화시키고 日本과 中國의 影響력을 제한하고 이들 3개국간과 다른 親西方, 또는 中립국들과의 政治, 軍事的 協力을 반대하고 저해시키려 모색해 왔으며 시베리아와 蘇聯 극동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 地域의 經濟와 技術자원의 활용에 관심을 가져왔다.

蘇聯은 世界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太平洋 地域과 經濟 關係를 증대시키기를 바라게 된 것이다. 특히 日本은 合作 投資 뿐만 아니라 다른 地域에 비해 낙후된 蘇聯 극동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데 기여해야 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지역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초기에는 經濟 發展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政治 및 軍事的으로 美國과 日本이 주도하는 西方側의 太平洋 經濟 協力으로 발전될 위험성을 회피하고 싶기 때문이다.¹³⁾

蘇聯은 아시아·太平洋地域에서 影響力 증대를 위해 그들의 外交活動을 強化하고 각종 軍비통제를 제의하면서 특히 地域内 국가들과의 經濟的 關係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蘇聯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撤軍과 베트남군의 캄푸치아 撤收를 비롯해서 우랄 이동의 중거리 미사일(INF) 배치의 중지 등으로 지역내의 問題들에 대한 融通성을 발휘하였다.

또한 蘇聯은 中國과의 關係 개선을 위해 1989년 5월에는 북경에서의 頂上會談을 성취시켰으며 특히 日本과 韓國을 비롯한 ASEAN제국과의 關係 개선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과 軍縮宣言에도 불구하고 蘇聯은 이 지역에 대한 軍事力의 現代화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은 그러한 政策을 수행하기

註 13) 디터하인지히, “고르바초프의 대아시아·태평양정책” 「국제문제」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0. 1.) pp. 80~81

위한 수단의 제약과 지역내 대부분 국가들이 갖는 蘇聯에 대한 불신감 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軍事 및 經濟 支援과 北韓에 대한 軍事 支援이 베트남의 캄푸치아 점령과 北韓의 테러주의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蘇聯의 아시아·太平洋政策은 經濟 協力の 증대 추구하고 軍事力 現代化의 모순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⁴⁾

蘇聯의 아시아 政策은 韓半島 問題를 통하여 동북 아시아에서의 포괄적인 軍縮을 실현하고 아시아에서의 이니셔티브 장악을 도모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韓半島 問題 解決에 있어 蘇聯이 目標하는 것은 5자회담도 4자회담도 아닌 6자회담이다. 6자회담을 통하여 美國의 海軍力을 축소하고 日本의 軍事力 증강에 제동을 걸면서 동북아시아의 포괄적 군축과 데탕트를 실현하려는 것이다.¹⁵⁾

고르바초프는 집권이후 아시아·太平洋地域의 安保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제안을 했다. 고르바초프의 대아시아·太平洋 지역 구상의 기본 골격은 지난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설¹⁶⁾을 통해 처음 밝혔으며, 1987년 7월에는 인도네시아 '무르데카'지 인터뷰에서 美·蘇의 핵무기 追加 配置를 중지하고 太平洋 및 印度洋에서의 海軍 訓練 제한과 사전 통고를 제의하였다.¹⁷⁾

고르바초프는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演說을 통해 이를 구체화시켰으며 1989년 5월에는 북경에서 UN지원에 의한 전 아시아적 프로세스(아시아안보)를 구축하고 1990년 까지 극동 蘇聯 軍병력 12만명 감축 계획을

註 14) 이한중, "소련의 극동 군사 전략과 핵무기", 「국제문제」 (서울: 국제문제 연구소, 1990. 9) p. 37

註 15) 월간중앙 편집부, 前掲書 pp. 116~117

註 16) 주내용은 ① CSCE(전유럽안보회의)를 모델로 한 태평양회의 개최 ② 태평양의 핵무기 탑재함 폐기 및 축소 ③ 대잠수함 병기 제한 등이다.

註 17) 韓國日報, 1991. 4. 14

발표하였으며 1990년 9월 세바르드나제 蘇聯 외무장관은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포괄적인 안보기구 구성 협의를 위해 1993년 가을 아시아·太平洋地域 외무장관 회의의 개최를 제안함으로써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¹⁸⁾

이어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日本을 방문, 日本國會에서 '21세기 동방 진출 전략'이라고 할만한 아시아·太平洋 安保 및 協力 구상을 제안하였다.¹⁹⁾

이러한 제안은 蘇聯이 이미 中國과의 관계 정상화, 韓國과의 國交樹立 등으로 이를 현실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蘇聯의 대아시아 戰略은 다국간 협의기구 설치를 통해 美國의 海軍力 삭감을 노리고 蘇聯의 地域內 영향력을 증대하는 한편 아시아와의 經濟的 關係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나 아시아·太平洋지역은 유럽지역과 달리 대립 관계가 복잡한데다 나라간의 경제 격차도 커 다국간 협의보다 地域 問題의 解決이 선결 과제이어서 蘇聯이 이지역 관계국의 協助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1991년 4월 日本의 나카야마 외무장관이 中國의 李鵬 總理와 만나 蘇聯의 집단안보 체제 구상을 반대키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고르바초프는 東京 演說에서 蘇聯의 軍事力 감축을 宣言했으나 日本과 美國은 아직도 이를 석연치 않게 바라보고 있고 오히려 최근 들어 蘇聯이 유럽 철수 병력을 우랄 동부 지역으로 이동, 아시아 지역의 軍事力을 增強시키고 있으며 군내 치안의 불안정을 이유로 군부 등 保守派의 입김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경계심을 풀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 군축 삭감을 전제한 蘇聯側의 아시아·太平洋地域 집단

註 18) 中央日報, 1991. 4. 17

註 19) 주내용은 ①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소극동군의 감축을 주도하고 ②군사 문제에서 일·소간의 대화 개시 ③미·일·소 3개국협의 ④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미·소·일·중·인 5개국회의 ⑤동북아시아, 일본해(동해) 수역의 안전보장과 협력지대설치에 관한 회의 구성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안보 구상은 蘇聯의 新思考 外交를 内外에 과시하는 한편 이지역의 美海軍力 감축을 유도하고 북방 4섬 반환을 요구하는 경제대국 日本에 ‘지역안보 분담책임’의 강조를 통해 經濟 協力を 얻어 내려는 다면적 효과를 노린 포석으로 볼 수 있다.

3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의 基本 目標

蘇聯의 對北韓 政策

蘇聯의 對南韓 政策

第3章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1.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의 基本 目標

제2차 세계대전 이후 韓半島에 대한 蘇聯 政策의 基本 性格은 다음과 같다.¹⁾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동시에 蘇聯이 共產主義 膨脹 政策을 강력히 전개하기 시작하면서 韓半島는 아시아에 있어 蘇聯의 共產 膨脹 政策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었다.

太平洋 戰爭 말기에 日本 戰爭에 참가한 댓가로 蘇聯은 北韓 地域을 쉽게 共產化하여 위성국으로 만들고 나아가 南韓 地域의 共產化와 위성국화까지 추구하였다.

둘째, 美·蘇關係가 冷戰關係로 변화하고 있고 美·日關係가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日·蘇關係가 적대관계로 변화하면서 蘇聯은 北韓 地域을 美·日 등서방 세력을 견제하는 전초 기지로 삼았다.

셋째, 1950년대말 부터 中·蘇間의 同盟 關係가 격렬한 불신, 적대관계로 변화하자 蘇聯은 北韓이 中國의 독점적 영향권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中國을 측면에서 견제하는 인자로서 北韓을 이용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1970년대 초반이후 蘇聯이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 膨脹主義 政策을

註 1) 전정환, 前揭書, pp. 33~34

과감하게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北韓은 蘇聯의 이러한 膨脹政策의 발판내지 거점으로 이용되었다.

1970년대 이후 蘇聯이 인지반도를 비롯한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 膨脹政策을 과감히 추진하고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美·日·中 3개국간 및 韓·美·日간의 반소제휴가 強化되기 시작하면서 蘇聯은 北韓과의 유대·協力 관계의 強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美·蘇間 및 東·西간의 冷戰이 지속되고 韓國 및 美國과 北韓의 적대 관계가 지속되고 韓·美간의 同盟關係와 蘇·北韓간의 同盟關係가 견지되는 속에서 8·15해방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韓國에 대한 적대정책을 거의 아무런 변화없이 고수하였던 蘇聯이 1980년대 말부터 韓國에 대한 접근을 적극화 하고 있다.

韓國이 가진 특성 즉 北韓과의 關係 및 동북아시아의 國際關係 가운데 가장 미묘하게 作用하고 있는 韓半島 주변 정세를 고려할 때 經濟的 측면과 安保 戰略的 측면의 두가지 면에서 蘇聯의 對韓國 접근 의도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소련의 경제 상황은 페레스트로이카 추진 5년을 경과하면서도 뚜렷한 개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래 沈滯된 經濟를 活性化하기 위해 노동 규율의 強化와 임금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등 제도 개혁을 도모하여 왔으나 蘇聯 經濟 상황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기대 심리로 박탈감만을 더욱 확대시켜 불만을 증폭시켰다.

蘇聯은 1990년 3월에 個人財產(私有財產)의 합법화 등 經濟改革 조치를 단행하였으나 蘇聯 국민 소비 생활의 개선은 西方 國家들의 經濟 協力 없이는 어렵다는 現實이 蘇聯의 對外 經濟 開放과 新思考 外交政策을 촉진시키고 있다.

蘇聯 經濟의 최대 관건은 시베리아 특히 극동 시베리아 地域의 개발에

달려 있다. 蘇聯이 이를 國家的 중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아시아 공업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나 中國과 北韓은 능력이 없고 日本은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韓國을 최적의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은 美·日이 PECC(太平洋 經濟 協力會議)등 지역 경제 기구를 조직하여 政治·經濟·軍事的으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으며 이 지역이 美·日の 世界 戰略을 위한 軍事·經濟的인 블록화할 가능성을 強化하는 등 종래 太平洋 協力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져왔으나 PECC와 ADB(아시아 개발은행)등 이 地域 經濟 協力 기구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美·日の 독주를 견제하고 이 지역의 經濟的 利益을 공유하겠다는 적극적인 인식으로 전환하였다.

아시아·太平洋 地域에서 韓國이 접하고 있는 지위는 蘇聯의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의 기반으로 作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이라고 蘇聯은 판단하고 있다.

蘇聯의 아시아 政策은 中·蘇關係 정상화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中·蘇關係도 천안문 사태 이후 순조롭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 또한 1986년 PECC에 옵저버로 참여한 이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蘇聯은 ASEAN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韓國과의 관계 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 蘇聯의 對北韓 政策

제2차 세계대전 이후 蘇聯과 北韓은 그들 나름대로의 戰略的 目標 달성을 위해 그동안 대내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때로는 밀착, 때로는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²⁾

註 2) 유석열, 「北韓政策論」 (서울; 法文社, 1988) p. 171

8·15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蘇·北韓關係 변화의 양상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1945-50년; 蘇聯은 친소파로 하여금 北韓의 당과 정부를 완전히 掌握토록 한후 北韓에 남침을 위한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는등 北韓을 蘇聯의 위성국가화 하였다.

(2) 1951-57년; 世界 共產化 路線의 일환으로 韓國 戰爭을 일으켰으나 中國軍의 참여로 인해 北韓에 대한 中國의 影響力은 점차 증대되었고 蘇聯의 영향력은 감소되었다.

(3) 1958-61년; 北韓은 1958년 中·蘇紛爭 속에서 간접적으로 中國 路線을 支持했으나 蘇聯 또한 균형있는 중간 노선을 취해 蘇聯·中國 쌍방에서 經濟的 지원을 획득하였다.

(4) 1962-64년; 蘇聯은 유럽 우선 政策에 따라 北韓에 대한 軍事·經濟 원조를 중단함으로써 北韓은 中·蘇紛爭에서 中國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다.

(5) 1965-68년; 蘇聯은 브레즈네프의 집권과 함께 對北韓 軍事·經濟 원조를 재개하여 1968년 까지 北韓軍은 蘇聯軍 장비로 완전히 무장할 수 있게 되었다.

(6) 1969-78년; 中·蘇間의 國境 紛爭이 악화되고 1978년 후반에는 美·中國의 화해와 日·中國 平和 協定 체결로 인해 中國·北韓間에는 불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金日成은 몇 차례에 걸쳐 蘇聯과 친선을 강화할 의사를 표했고 사실상 蘇聯과 北韓은 經濟 및 인적 교류를 행하였다.

(7) 1979-81년; 蘇聯은 1979년 6월 北韓과 關係 개선의 뜻을 비추면서 주한 미군 철수 등을 포함한 北韓의 統一 政策을 支持했고 北韓도 이에 호응하였다.

(8) 1982-83년; 北韓과 中國은 對美政策과 金日成 權力 承繼 問題에 있어 이견이 좁혀졌고 北韓에 대한 中國의 經濟·軍事 지원은 늘어난 반면 蘇聯은 군사 원조를 중단함으로써 北韓은 중국측에 상당히 밀착하였다.

(9) 1984-87년; 1983년 蘇聯의 KAL기 격추 사건과 北韓의 버마 암살

폭발 사건으로 인해 蘇聯과 北韓은 서로의 난처한 立場을 옹호하게 되고 蘇聯은 北韓의 權力 承繼를 묵인, 軍事·經濟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金日成은 1984년 18년만에 蘇聯을 방문한데 이어 1986년 재차 방소함으로써 쌍방은 밀착 관계를 갖게 되었다.

(10) 1988-현재 ; 蘇聯은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을 계기로 199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역사적인 韓·蘇頂上會談을 가진데 이어 동년 9월 韓·蘇修交, 동년 12월 노태우 大統領의 蘇聯 방문, 1991년 4월 고르바초프의 제주도 방문 등으로 인해 韓·蘇關係는 友好協力 體制로 변한데 반해 蘇·北韓關係는 상당히 악화되었다.

蘇·北韓關係는 1984년과 1986년 金日成의 방소이래 급속도로 발전하여 군사면에서 특히 蘇聯軍 航空機의 北韓 영공 통과와 소련 함대의 원산항 기항등 긴밀한 유대를 확대하여 왔다. 또 미그23, 미그29, 스킨 미사일 등이 제공되고 해군의 합동 연습도 계속되고 있다.³⁾

蘇聯은 北韓에 최신예 군사 장비를 제공하고 양측 군고위층의 相互 訪問에 이어 蘇聯 太平洋 함대와 北韓 海軍과의 聯合 訓練을 연례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蘇聯의 작전기가 北韓 영공을 통과, 서해로 진출하게 까지 되었다.⁴⁾

그리고 極東에 配備된 蘇聯의 太平洋 함대가 각종의 戰略 및 전술 핵무기로 配備되어 있다는 사실은 蘇聯의 傳統的인 남진전략과 기존의 蘇·北韓 軍事協力 關係를 감안할 때 韓半島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무역도 급증하여 1987년 蘇·北韓과의 무역 총액은 1983년에 비해 2배 증대하였다. 특히 蘇聯의 對北韓 수출이 현저하게 증대하여 약 3배에 이르렀고 北韓의 대소적자도 급증하였다. 蘇聯은 무역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차관을 공여하고 있는 것이다.

註 3) 월간중앙 편집부, 前揭書 p. 117

註 4) 이한중, "소련의 극동 군사 전략과 핵무기", 「국제문제」 (서울; 국제문제 연구소, 1990. 9) pp. 42 ~ 43

북한의 무역 구조는 蘇聯·日本·中國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련의 비중은 전체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蘇聯은 北韓의 經濟와 軍事 부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北韓에 있어 蘇聯의 存在는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990년 6월 1차 韓·蘇頂上會談을 계기로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면서 蘇聯과 北韓 關係도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北韓이 蘇聯의 改革과 開放政策을 비난하고 韓·蘇關係의 진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더욱더 악화되었으며 1990년 7월 蘇·北韓 友好協力 및 相互 援助 條約 29주년을 맞이하여 北韓은 蘇聯에 반제투쟁을 위한 協力を 호소했지만 蘇聯은 經濟 協力を 강조하였으며 소련측의 蘇·北韓 방위 동맹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양측의 불편한 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가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韓·蘇間의 經濟 協力の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로는 북한에 신형 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앞으로 北韓과 蘇聯과의 關係는 北韓의 對蘇 姿勢에 따라 더욱더 악화될 수 있다.

蘇聯은 北韓이 開放 政策을 수용하지 않는 한 그것은 蘇聯의 이익에 저해될 것이기 때문에 北韓은 더욱 어렵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北韓과 蘇聯의 關係는 1990년 韓·蘇頂上會談을 계기로 악화됐으나 낮은 레벨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蘇聯과 北韓의 軍事 關係도 유지되고 있다. 蘇聯이 하이테크 무기를 北韓에 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蘇聯 인사들이 서울에 와서 하는 발언에는 현실을 과장한 것이 많고 蘇聯의 對韓政策은 그들의 발언만큼 진전되지 않았다.

北韓은 蘇聯의 내부 진통을 경계심을 갖고 냉정히 지켜보고 있다. 北韓이 이러한 姿勢를 취하고 있는 것은 對美 關係 改善을 위한 카드로 쓰기 위해서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 北韓은 蘇聯의 최근 양상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蘇聯의 내부진통 과정을 통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유리하게 보기도 하는 것이다.⁵⁾

1991년 4월 日·蘇頂上會談에 이어 韓·蘇頂上會談이 열렸고 동년 5월에는 中國의 李鵬 總理가 北韓을 공식방문 했는가 하면 지난 57년 毛澤東의 訪蘇이후 中國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江澤民이 蘇聯을 방문하였다.

이렇듯 東北亞 질서 개편과 관련한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北韓의 선택은 현체제를 고수하느냐 개방과 개혁을 통해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北韓과 蘇聯의 關係는 1990년 韓·蘇修交 직후 최악의 지경에 빠졌던 시점을 분수령으로 최근에는 또다시 호전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이다.

1990년 9월 세바르드나제 당시 소련 외무장관이 平壤을 방문했을 때 만해도 蘇聯은 물자 교역에 대해 硬貨 지불을 요구했고 金日成은 관례를 깨고 그의 예방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말 부터 고위당국자의 교류가 다시 빈번해졌으며 蘇聯은 대금의 硬貨 지불대상에서 北韓을 1년간 제외시켰다. 이는 蘇聯이 北韓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며 버릴 이유도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北韓은 고르바초프의 先南韓 방문을 계기로 보다 심각한 현실 인식하에 美·日과의 關係 改善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고 나름대로의 全方位 外交를 펴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南北韓 問題가 이렇게 蘇聯의 이니셔티브하에 진전 될 경우 美國의 對北韓 접근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한반도 상황은 새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3. 蘇聯의 對南韓 政策

蘇聯은 1945년 8월 蘇聯 極東軍이 敗亡하는 日本軍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註 5) 東亞日報 1991. 3. 27

韓半島에 상륙한 이래 1990년 까지 45년간 韓半島에 있어 決定的인 外部 勢力으로 存在해 왔다.⁶⁾

8·15해방이후 부터 현재까지 蘇聯의 對南韓 關係變化의 양상을 기간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1945-80년 ; 이 기간에 蘇聯의 對韓半島 姿勢는 구조적 제국주의와 理想的 共產主義를 세계 戰略으로 追求함에 따라 蘇聯에 있어 韓半島는 오로지 이에 종속적인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중 韓半島와 蘇聯의 關係는 오로지 北韓과 蘇聯과의 종속구조로 존재할뿐 남한은 소련의 關係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韓國이 蘇聯의 對韓半島 關係에서 어떤 形態의 國際 關係도 존재할 수 없었던 까닭은 蘇聯의 對外 政策이 共產主義 理念 体系의 名分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2) 1981-85년 ; 蘇聯의 經濟는 1980년을 契機로 거대한 軍事大國을 維持할 수 없게 되기 시작하였고 1982년 브레즈네프가 死亡한 후 그 뒤를 繼承한 안드로포프와 체르넨코가 도합 28개월 정도 政权을 維持하고 사망함으로써 3년 사이에 3명의 指導者가 바뀌는 政治的 不安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蘇聯의 對外政策은 제자리에 정지된 狀態에서 帝國主義와 共產主義 政策을 強力히 追求하지 못했으나 그렇다고 帝國主義的 共產主義 對外政策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이 기간의 蘇聯의 對韓半島 姿勢는 北韓과의 기존의 關係를 維持했지만 적극성이 결여된 北韓·蘇聯 關係를 維持하고 있었다.

(3) 1986-90년 ; 체르넨코의 사망과 더불어 1985년 3월 취임한 고르바초프가 1986년에 개최한 제27차 蘇聯 共產黨 全黨大會를 기점으로 들어난 페레스트로이카의 도래였다.

註 6) 自由評論社 編輯部, “韓·蘇修交” 「脫冷戰時代의 새로운 도전」 (서울; 자유
평론사, 1991. 1) pp. 20~24

이 기간중 蘇聯 共産黨 제28차 全黨大會에서 '1당독재'가 무너지고 美·蘇軍縮 協商等 각종 協力 關係의 재정립이 있었으며 동·서독이 統一되었다.

이 기간 韓半島에서는 蘇聯을 포함한 모든 共産國家가 참석하는 88 서울 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

1990년 6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역사적인 韓·蘇頂上會談이 개최되었으며 동년 9월에는 韓·蘇間에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고 12월에는 노태우 大統領이 蘇聯을 공식 방문, 2차 韓·蘇頂上會談을 갖고 모스크바선언에 공동 서명했다.

이것은 신데탕트로 요약되는 세계 질서의 재편 교류가 韓半島를 위시한 동북아에 까지 미친것을 말해주는 확증인 것이다. 韓國과 蘇聯의 수교는 1905년 대한제국과 제정 러시아간의 관계가 단절된 후 85년만에 다시 國交가 正常化된 쾌사로서 韓國으로서는 외교사에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며 양국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다.”

韓國이 韓半島 분단과 6·25한국 동란의 한 당사자로서 적대시해 온 蘇聯과 外交 關係를 맺었다는 사실 자체는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 情勢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韓·蘇修交는 양자간의 관계 정립만을 意味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東北亞 질서의 재편을 뿌리내리는 전환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韓國 北方 外交의 큰 개가라 할 수 있다. 우선 화해와 協力の 탈냉전, 신데탕트 사고를 동북아에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

韓·蘇修交는 단기적으로는 蘇·北韓 關係의 급속한 냉각으로 南北韓 關係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때 韓半島 問題에 대하여 가지는 蘇聯의 영향력과 傳統的인 蘇·北韓 동맹관계의 불가피성으로 해서 南北韓 關係 개선과 이에 따른 韓半島 긴장 완화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할

註 7) 최종기, “한·소수교의 의의와 한국 외교의 과제”, 「안전보장」 (서울; (주) 시사, 1990. 10) pp. 11~14

것이다.

또한 두차례에 걸친 韓·蘇頂上會談은 南北關係 改善이라는 民族史的 意味를 갖는 동시에 동북아에서 냉전을 몰아내고 平和를 정착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 중대한 사건임에 틀림없다.⁸⁾

이 기간중 특징은 蘇聯이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과 더불어 더 이상 帝國主義的 共產主義 政策을 追求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蘇聯의 帝國主義的 共產主義 政策으로부터 이들을 보아온 北韓의 權力 기득권층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蘇聯의 對韓半島 구상에 적응하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4) 1991-현재 ; 蘇聯의 對韓半島 關係가 완전히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韓·蘇國交 정상화를 이룩한지 7개월만인 1991년 4월 방한했다.

남북한을 통틀어 蘇聯의 최고 지도자나 원수가 韓半島를 방문한 것은 유사 이래 처음있는 일이고 그것도 사상 첫 극동 방문 여정에서 日本에 이어 韓國을 訪問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건이다.

게다가 蘇聯과 軍事同盟 關係를 맺고 있는 北韓의 金日成이 이제까지 일곱차례나 모스크바를 방문했지만 蘇聯의 頂上이 한번도 평양을 찾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물론 고르바초프의 訪韓이 韓國 정부의 강한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蘇聯이 北韓에 앞서 韓國 訪問을 決定한 배경에는 걸프전 이후 國際的 영향력이 강해진 美國에 대항해서 동북아에서의 立地를 확보하려는 戰略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고르바초프는 이번 방한시 ‘韓半島問題 解決’과 關聯, 예의 보편성 원칙을 들어 UN 가입 문제와 북한에 대한 핵사찰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결국 우

註 8) 김학준, “한·소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변화”, 「안전보장」 (서울 ; (주)시사 1990. 8) p. 45

리가 요구하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韓·蘇頂上會談을 통해 지구상에 남은 冷戰 구조를 해체하고 동북아의 신질서 창출을 위해 太平洋國家인 韓·蘇兩國이 그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공통의 의식을 거듭 천명하였다.

고르바초프는 韓·蘇關係를 國際的 효력을 지닌 우방 관계로 조문화하기 위해 ‘韓·蘇友好 協力 條約’을 체결하자고 제의, 韓·蘇關係를 韓·美關係의 수준으로 까지 이끌어 가려는 적극적인 친한 자세를 공식화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이같은 態度 表明은 韓·蘇關係가 政治的 蜜月關係에 들어설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일 뿐만아니라 역으로 北韓의 무한 폐쇄노선에 대한 최후 통첩성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韓·蘇頂上會談으로 보다 확고히 구축된 韓國과의 동반체제를 韓·中協力を 바탕으로 北韓에 대한 개방 압력과 목조르기를 보다 가중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中國이 蘇聯의 입장에 동참할때 그 효과와 영향력은 보다 빠른 속도로 가시화될 것이다.

韓·蘇頂上會談을 통해 2人3脚의 동반체제를 굳힌 韓·蘇兩國은 다음 착점을 북경으로 선택, 韓半島 및 평양의 봄을 앞당기기 위한 우회로 개척에 우선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⁹⁾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이 經濟的 그리고 政治的 성공을 가져오는 경우 韓半島·蘇聯間의 協力 關係가 ‘동북아의 새로운 時代’를 창조할 원동력이 될 수 있다.

蘇聯이 韓國으로부터 얻을수 있는 國家 利益이 적지않을뿐 아니라 韓半島가 지니고 있는 國益 차원의 현실을 도외시하는 경우 東北亞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유래하는 蘇聯의 國益이 韓半島 때문에 불확실해 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련은 帝國主義的 共產主義 外交가 더이상 蘇聯의 國益이 아니라는 사실

註 9) 朝鮮日報, 1991. 4. 21

을 깨닫고 이른바 新思考(NOVOE MYSHLENIE) 外交 路線을 혁명적으로 채택함에 따라 韓半島가 蘇聯의 對外政策 구도에 매우 중요한 外交的 대상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앞으로 韓半島의 平和를 위한 蘇聯의 역할이 美國·中國·日本보다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蘇聯은 韓半島 平和구조 구축에서 얻어지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東北亞 내지 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平和的 이미지와 平和 지향적 역할 증대를 꾀할 것으로 본다.

4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이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 및 韓國의 對蘇 政策 方案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

韓國의 對蘇政策 方案

第4章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이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影響 및 韓國의 對蘇政策 方案

1.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 중반이후 蘇聯의 極東 軍事力 增強이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영향은 큰 변수로서 그 비중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蘇聯의 極東 軍事 戰略은 첫째로 蘇聯 영토의 방위이며 둘째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방대한 蘇聯의 戰略武器 체계들인 탄도 미사일과 전략 잠수함(SSBN)들을 보호하고 戰略적인 핵공격과 전구핵공격을 수행, 中國과의 戰爭을 회피하고 日本과 韓國에 대해서는 蘇聯의 政治 및 軍事的인 수단등을 동원하여 美國과의 關係를 소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蘇聯의 極東 軍事戰略은 西部 戰線에 비해 방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한 공격을 위한 작전 능력을 배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단의 대부분이 핵무기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

고르바초프는 1988년 12월 UN에서 1990년대말 까지 50만의 병력 감축을 일방적으로 宣言하였는 바 그중 20만은 極東 地域에서 감축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1989년 5월에는 몽고주둔 全蘇聯 空軍과 지상군 사단등 5만이 철수될 것이라고 하였다.

蘇聯은 1970년대말 西部, 東部, 南部등 전전선에 각각 독자적인 작전을

註 1) 이한중, 前掲書, pp. 38 ~ 41

수행할 수 있는 전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특히 동부전선인 극동 전구 총사령부를 이르쿠츠크에 설치하고 최신형 SU-27기를 생산함으로써 동부전선의 잠재력을 증대시켰다. 蘇聯은 최근 신형 전략무기를 개발, 생산하고 있는바 사거리가 3천Km에 달하는 크루즈 미사일, SS-18, SS-24, SS-25형의 ICBM(대륙간 탄도유도탄)들과 SS-N-20, SS-N-23형의 SLBM(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등이 그것이다.

蘇聯의 太平洋 함대는 極東 蘇聯 軍事力 가운데서도 영향력의 행사등을 위해 使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軍事力이다. 極東 蘇聯軍의 지상군과 공군은 대부분이 7천4백Km에 달하는 中·蘇國境 地域과 日本의 북방에 고착되어 있으나 최대 규모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蘇聯에게는 서부전선에 비하면 제2전선이지만 지역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蘇聯에게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래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平和 攻勢를 적극화하면서 지역내 국가들과의 經濟 協力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군축 선언에도 불구하고 極東의 蘇聯 軍事力은 괄목할 만한 감축도 없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신형의 함선과 기종들이 배비됨으로써 오히려 軍事 能力을 증대시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蘇聯의 이 지역에서의 軍事力 增強은 다음과 같은 安保上의 問題를 대두시킨다고 볼 수 있다.²⁾

첫째, 軍事力 균형상의 문제로서 韓半島에서의 軍事力은 美國과 蘇聯의 전력을 비교했을때 韓國의 국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제재 능력의 확보에 따르는 問題로서 韓半島나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戰爭이 발발하게 되면 蘇聯이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美國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政治的·心理的·軍事的 고려와 부

註 2) 이주병, “고르바초프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 연구” (한양대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7. 12) pp. 59 ~ 60

답을 안겨주게 된다.

셋째, 보급로를 차단하는 능력이다. 蘇聯은 이미 이에대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잠재력이 계속 증대될 것이다.

넷째, 蘇聯이 北韓으로 하여금 대남 무력도발을 교사하거나 고무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으나 만일 北韓이 스스로 대남 무력도발을 자행하게 되면 蘇聯은 피동적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³⁾

다섯째, 韓半島 유사시 蘇聯의 對北韓 지원 능력이 크게 강화됨으로써 北韓의 도발 의욕을 고무시킬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와 關聯하여 역사적인 두차례의 韓·蘇頂上會談과 1991년 4월 고르바초프의 방한은 東北亞에 새로운 질서를 태동시켰으며 北韓이 蘇聯의 개방 종용을 거부하고 고르바초프의 改革 政策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蘇聯과 北韓 關係는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北韓의 자세에 따라 더욱 악화될 수 있다.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傳統的인 이해 관계는 韓半島의 戰略的인 위치와 대한해협등과 관련하여 주로 軍事 戰略的인 것이었으며 특히 北韓과 蘇聯 關係는 軍事的인 것이다.

따라서 極東에 배치된 蘇聯의 핵전력을 감안할때 北韓의 주장대로 韓半島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韓半島의 安保및 軍事力 균형에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2. 韓國의 對蘇政策 方案

韓國의 蘇聯政策은 北方政策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으나 蘇聯政策을 論外로 한 北方政策은 成立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比重은 매우 크

註 3) George H, Quester., Northeast Asia : The Nuclear Complication, 국제정치논
총. 제20집 1980, p. 284

다고 보아야 한다.”

韓國의 北方政策은 용어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 그대로 韓國의 北方에 位置하는 國家들에 대한 外交 關係 및 對外政策을 意味한다. 蘇聯은 領土의 크기나 自然 資源의 數量, 人口의 수에 있어 명실공히 세계 제1을 자랑하는 초강대국이다.

蘇聯은 韓國과 다음과 같은 3가지 側面에서 密接한 關係를 形成하고 있다.⁵⁾

첫째, 地政學的으로 볼때 蘇聯은 豆滿江을 境界로 하여 國境을 접하고 있다. 三面이 바다인 韓國에서 東海는 烏라디보스톡이 連結되어 蘇聯 海軍의 排他的 影響下에 있다.

둘째, 歷史的으로 생각할때 蘇聯은 항상 韓國과 衝突 및 協力 關係를 맺어 왔다.

東北아시아의 要衝地인 韓半島를 掌握하기 위해 蘇聯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國力을 競走해온 것이 事實이다.

歷史的으로 유명한 戰爭인 露日戰爭은 韓半島를 둘러싼 勢力 爭奪戰의 결과 發生한 세계적 대전이었다.

셋째, 이데올로기적으로 고려할때 蘇聯은 共產主義 陣營의 宗主國家로서 北韓의 理念的, 現實的 後援勢力으로 군림해 왔다.

즉 國際 情勢가 이데올로기적 對決로 경화될 때는 韓國과 蘇聯 關係는 敵對的 關係로 치달았으며 德壤트 和解 분위기가 支配的일 때는 相互 協力の 모색이 활발히 進行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地政學的·歷史的 이데올로기에 基礎한 國際 政治的 視覺에서 把握할때 韓國의 對蘇政策은 가장 중요한 位置를 차지하게 된다.

過去의 이데올로기적 對決 關係를 깨끗하게 清算하고 相互 善隣, 友好

註 4) 최 중, “90년대 한·소관계 전망”, 「국제문제」 (서울; 국제문제연구소, 1990. 4) p. 33

註 5) 자유평론사편집부, “한국 북방 정책의 형성과 전개”. (서울; 자유평론사, 1989. 12) pp. 209 ~ 211

關係를 形成하며 經濟面에서 協力 및 相互 依存 關係를 維持시킬 뿐만 아니라 政治적으로 敦篤한 紐帶 關係에 까지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蘇聯은 世界的으로 廣大한 原料 生産 地域일 뿐만 아니라 巨大한 商品 消費市場 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原料 供給地와 商品市場 確保라는 側面에서 蘇聯은 韓國에게 새롭고도 중차대한 戰略的 意義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蘇聯의 大規模 시베리아 開發 計劃에 韓國이 참여를 함으로써 蘇聯의 黃金 市場을 占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蘇聯은 1945년 南北分斷과 6.25이후 北韓의 對南共產化 鬭爭을 격려하고 支援하는 決定的 背後 勢力이었고 현재까지 對北韓 支援 役割을 거의 그대로 維持하여 왔다는 점을 干戈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韓國이 蘇聯과 善隣 友好 關係를 形成하고 相互 關係를 深化시킬 수 있게 된다고 하면 동북아시아 勢力 均衡 및 南北韓 關係에 중대한 變化를 惹起시킬 정도로 韓國 對外政策의 赫赫한 成功으로 看做될 것이다.

韓國은 蘇聯과의 關係 正常化를 통해 北韓의 改革, 開放을 유도하고 나아가 東·西獨과 같은 統一 雰圍氣를 造成할 수 있다.

韓·蘇關係의 發展은 南北韓 關係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며 이로 인해 韓 半島정세가 어떤 方向으로 進展될 지 예측하기 어려우나 軍事 安保的인 側面에서 駐韓美軍의 段階的 減縮이 現實化되고 있는 차제에 韓·蘇關係 改善과 韓半島에서의 軍縮, 軍備 管理가 進展될 경우 韓國은 蘇聯이라는 安保的 擔保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5

結 論

第 5 章 結 論

韓國의 北方政策에 있어서 韓半島에 永久的 平和를 保障하는 制度的 장치
를 마련하는 일은 그 어떤 問題보다 중요하다.

蘇聯의 아시아 戰略으로 미루어 韓半島에 平和 裝置를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가 韓·蘇關係의 懸案이 될 가능성은 아주 많기
때문에 韓·蘇關係는 發展의 潛在力에도 不拘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調節되
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平和 裝置를 마련하는데 있어 우리의 試驗과 檢
證이 가능해 질 것이다.

韓·蘇關係는 發展의 無限한 潛在力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蘇
聯을 相對로 하여 北方政策의 早急性을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으며 일정한
制度的 裝置와 段階的인 타임테이블을 바탕으로 끈기있게 기다리는 姿勢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韓·蘇關係 發展의 安定 裝置로서 남과북을 連結하는
韓國과 北韓, 그리고 蘇聯 3國의 共同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여기에 象徴적인
韓半島 平和의 意味를 부여하는 것도 積極적인 北方政策의 推進이라는 觀點
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고르바초프 登場이후 蘇聯의 對內外的인 政策이 크게 變化하였고 韓半島에
대한 政策 역시 劃期的으로 變化하여 韓·蘇間에 오랜斷切, 敵對關係가 國
交正常화와 각종 協力 關係의 發展으로 轉換하였고 蘇·北韓間的 오랜同盟,
紐帶 關係가 상당히 소원해졌고 不和關係로 까지 發展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나 蘇聯은 韓國과의 關係를 正常化하고 發展시키면서도 北韓과의 기존 관
계를 最大限 維持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 역시 韓·蘇關係 發展에 反撥하고 이를 沮止하려고 最大限 노력하면서도 蘇聯과의 同盟 關係 및 協力 關係를 維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蘇聯이 현재 深刻한 經濟難과 聯邦 瓦解의 危機 및 改革·保守 勢力間的 葛藤, 對立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狀況에 빠져있고 蘇聯의 政策이 強硬·保守化 傾向을 다시 짚게 띠고 고르바초프 權力 基盤과 統治權이 不安定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나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現정책은 고르바초프나 蘇聯의 어느 特定 集團의 政治 性向보다 蘇聯의 國家 利益과 國家 政策을 優先的이고 가장 중요한 基盤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韓·蘇關係를 비롯한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이 앞으로 相當한 期間동안 다시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韓·蘇關係가 正常化되고 韓·蘇友好協力 條約을 체결하더라도 蘇聯은 北韓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蘇·北韓關係 만큼 되지는 않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國文 單行本

- (1) 崔鍾起, 「各國外交政策論」, 서울; 韓國國際關係研究所, 1981.
- (2) 崔鍾起, 「蘇聯外交政策論」, 서울; 法文社, 1988.
- (3) 柳錫烈, 「北韓政策論」, 서울; 法文社, 1988.
- (4) 自由評論社 편집부, 「脫冷戰時代의 새로운 挑戰」, 서울; 自由評論社, 1991
- (5) 自由評論社 편집부, 「韓國北方政策의 形成과 展開」, 서울; 自由評論社,
1989
- (6) 全 雄, 「外交政策論」, 서울; 法文社, 1986
- (7) 鄭鎮涓, 「北方三角關係」, 서울; 法文社, 1985
- (8) 崔鍾起, 「現代蘇聯政治論」, 서울; 法文社, 1987
- (9) 張惠煥, 「蘇聯의 外交政策」, 서울; 大旺社, 1981
- (10) 安秉俊, 「強大國關係와 韓半島 安保論」, 서울; 法文社, 1986
- (11) 安澤源, 「蘇聯政治의 体系的 理解」,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1986
- (12) 朴輝洛, 「蘇聯 軍事戰略 研究」, 서울; 法文社, 1987
- (13) 李鍾學, 「韓半島의 軍事問題」, 서울; 형설 출판사, 1981
- (14) 金容郁, 「國際環境과 韓國政治」, 서울; 法文社, 1986

2. 論 文

- (1) 종소연구편집부, “蘇聯 對外政策의 傳統的 目標”, 「중·소연구」, 한양대 중·소연구소, 1990. 여름
- (2) 殷寅永, “東北아시아 國際氣流의 變動”, 「총력안보」, 1986. 12
- (3) 金正煥, “蘇聯의 대아시아政策”, 국방대학원, 1984
- (4) 정천구, “한반도분단의 배경과 그 구조적 성격”, 국토통일원, 1985
- (5) 金正煥, “蘇聯 極東 軍事力의 증강 의도와 韓國의 安保”, 「國際問題」, 1985. 4
- (6) 유창수, “蘇聯 極東 軍事力 증강이 韓國의 安保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원, 1984
- (7) 신승권, “韓·蘇兩國 각각 이것을 노린다. 「월간중앙」 1990. 5
- (8) 디터 하인지히, “고르바초프의 對아시아·태평양 政策”, 「國際問題」. 1990. 1
- (9) 金正煥, “國際情勢와 蘇聯의 韓半島 政策”, 「새물결」. 1991. 봄
- (10) 이한중, “蘇聯의 極東 軍事戰略과 核武器”, 「國際問題」, 1990. 9
- (11) 崔鍾起, “韓·蘇修交의 意義와 韓國 外交의 課題”, 「안전보장」 1990. 9
- (12) 金學俊, “韓·蘇頂上會談과 韓半島 情勢變化”, 「안전보장」, 1990. 8
- (13) 이주병, “고르바초프 政權의 對韓半島 政策 研究“ 한양대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7. 12
- (15) 최 중, “90년대 韓·蘇關係 展望”, 「國際問題」. 1990. 4

- (16) 金榮武, “80년대 蘇聯의 韓半島 政策 決定에 關한 研究”, 연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89.
- (17) 朴京鍾, “蘇聯의 東北亞 安保 戰略에 關한 研究”, 청주대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 1989.
- (18) 東亞日報, 1988. 10. 17
- (19) _____, 1991. 3. 27
- (20) 韓國日報, 1991. 4. 14
- (21) 中央日報, 1991. 4. 17
- (22) 朝鮮日報, 1991. 4. 21

3. 英文單行本 및 論文

- (1) Holsti, K. H., International Politic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1977
- (2) Diplomatic Dictionary. : Moscow : state printing. House for Political Literature, 1961
- (3) Donald. S. Zagoria, ed., “蘇聯의 對아시아 政策”
- (4) George, H. Quester., Northeast Asisa : The Naclean Complication,
1980
- (5) Donald. S. Zagoria., Moscow and Pyongyang : The strained Alliance,
chiness Affairs Vol. 2, No. 1, 1977
- (6) Aspaturian, Vernoned., Process and Power in Soviet Foreign Policy.
: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 (7) Brenzinski, Zbignew., The Domestic Context of Soviet Foreign Policy.
Boulder, Colorado : Westview Press, 1981

ABSTRACT

A Study on the USSR'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BAE, JONG JIN

Major in Policies

The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USSR, which had maintained its basic policy that can be depicted as a hostile policy toward S.Korea and the one-sided backing & support policy toward N.Korea, began to epochally convert its policy toward S. Korea since the later part of 1980s. Following the 1st historical summit conference between S.KOR & USSR in San Francisco, in June, 1990, the President, Gorbachev, visited Jeju Island, in April, 1991, had the 3rd summit conference between S.KOR & USSR, and agreed in propelling the

Treaty of Amity & Cooperation between S.KOR & USSR.

In the study, since its intention is to analyse the USSR's positive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the USSR's foreign policies toward N.E. Asia have been majorly studied on with regard to spatial terms, and with regard to timely terms, political situations and decisive factors in 1980s, specially since Gorbachev's seizure of power were analysed.

In Chapter II, the strategic environment in N.E. Asia, the background of USSR's proceeding into N.E. Asia, and the foreign policies over New Asia & Pacific Ocean were analysed, in Chapter III, the USSR's policies toward N.KOR and S. were comparatively analysed, and in Chapter IV, the influence of the USSR'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and Korea's political schemes toward USSR were suggested.

Since Gorbachev's advent on the stage, as the USSR'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has epochally changed, the long time stoppage of relation and hostility relation between S.KOR & USSR has converted to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 relation, the relation of the long time alliance and tie between N.KOR & USSR has been weakened, and it is a fact that even the relation between them has been worsened, and however, USSR will give effort to maintaining atmost the existing relations with N.KOR, and never give up the relation with N.KOR.

USSR, now, is in such situations as severe financial difficulty, conflict and confrontation between revolutionary power and conservative power,

and there is even a report that the basis of Gorbachev's power and supreme power are becoming unstable, and however, since the USSR's present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bases on the USSR's national interest and policy in the first place rather than on any political disposition for Gorbachev or any particular political group, the USSR'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relation between S.KOR & USSR is not expected to show any significant change in a considerable period in the future.